

전남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속도

세계 기후 도시 포럼서 제1차 담당자 협력회의 전남·경남 12개 시·군 협업체계 강화 총력 대응

전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수에서 세계기후도시포럼을 진행하는 한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COP33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상생발전협약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20일엔 전남·경남 12개 시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어 공동 유치 성공을 다짐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선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전남도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총회 참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공동 유치를 위한 제도·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인적 네트워크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활동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간 의견도 나눴다.

전남도는 제33차 총회 유치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이 전 세계 기후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참여 지자체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제33차 총회 유치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나라별 도시전략을 살펴보는 포럼이 개최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조성 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여수·순천·신안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33차 총회 공동 유치를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기후도시포럼은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자연기반 해법 중심의 도시 정책전략(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21일까지 진행

된다.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독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FOM 응용과학대학) 및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지역 프로그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아태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유럽 연합대표부, 여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 공동행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계 도시 간 기후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 독일, 동남아시아 등 6개국 6개 도시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시사례 발표 및 참가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21일엔 자연기반해법 적용 도시 우수사례 발표, 친환경 도시를 위한 핵심 전략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이어진다. /김재정 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이개호, 양파생산자협회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예비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20일(수) 전남 양파생산자협회 합평군지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기후위기속에서 양파, 마늘 등 국산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가격보장 및 생산비 절감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채소류 수급 안정 직불제도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 농자재 지원법 제정 및 농업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 ▲기후 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



험 공공성 강화 등의 사항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이 예비후보는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양파, 마늘 등 채소농가는 급격한 가격 변동과 생산비 급등으로 노련한 만큼의 대가는 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관련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민형배, 광산을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예비 후보(광주 광산)가 20일 제22대 총선 광산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독재를 조기에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 과제"라며 "비정상을 바로



잡아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예비후보는 ▲광주·전남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 구상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 민생 회복의 선결 과제"라며 "비정상을 바로" /박성강 기자



전남도는 20일 여수 베네치아 컨벤션센터에서 전남·경남 12개 시·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어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 성공을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자격 유지 결정

민주 윤리감찰단 "경선부정, 후보와 연관성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밤 '경선부정' 의혹이 제기된 광주 북구갑 정준호(새진) 후보에 대해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은 "광주 북구갑에 정 후보자를 의결하고 인준했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이)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의원인 조오섭(초선) 의원의 양자 경선에서 이거 후보로 확정



됐으나 북구 선관위로부터 전화 홍보방 불법 운영 의혹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 교체까지 검토했으나 그대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정 후보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점과 관련, 박 대변인은 "사

법적인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정 후보의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후보 교체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윤리감찰단 조사상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 이후의 내용을 예측해서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이 이점이 제기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엔 "그렇다"며 "이점은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도의회 '소통 부재尹정부 규탄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소통 부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입막음 사건'이 채 가랏기도 전에 해병대 채도 상병 수사 의뢰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를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일방통행식 행보로 국민과 더욱 멀어지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

도, 생활도자산업 지원...공동브랜드 개발 등 4억 투입

전남도는 20일 "올해 생활 도자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브랜드 적용 상품 제작, 제품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3천만 원 증가한 4억 원의 세라믹 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동브랜드를 적용한 도자 제품을 제

작부터 홍보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도자 제작기업의 매출 증가와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취급점 모집

당뇨·고혈압으로 고생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드신 후 50분 후 당을 체크하십시오.
당일 즉시 30-50mg 이상
당이 떨어집니다.
확인하십시오.
조건 없이 무조건 7일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등록허가 제품,
특허청 출원 제품,
농협생 산물배상 3억 가입 제품.
문자만 주십시오.

사람을 찾습니다

- 무료 시음회 참석하실 분 -

-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
- 고혈압으로 시달리신 분
- 고혈압, 당뇨 혈당을 정상화하고 싶으신 분
-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
- 말이 필요 없습니다. 50분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조건 없이 7일분 보내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등록 제품 / 특허출원 등록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대양식품(주) (문자 및 문의) H.P 010-4624-5046 (농협 : 302-0078-2035-31 유한성)
(단, 택배비 소비자 부담 5,000)

마시는 알부민 골드α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기력이 떨어져 힘들어 하시는 분
- ✓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 ✓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지치신 분
- ✓ 기초 건강 및 건강 증진을 원하시는 분
- ✓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 직장인, 청소년, 수험생, 노년층

1개월분(30포) : 148,000 원

OEM ODM 각종 파우치 환 제조하여 드립니다.

(주) 보람약품

네이버 카페 마시는 알부민α 검색

주문 : yuhanbio@naver.com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 유한은

시군 대리점 모집

광주본사 : 010-4624-5046